

애기봉 성탄트리, 재설치 23일 점등식

한기총, 해병대가 철거한 김포 애기봉 성탄트리 다시 불 밝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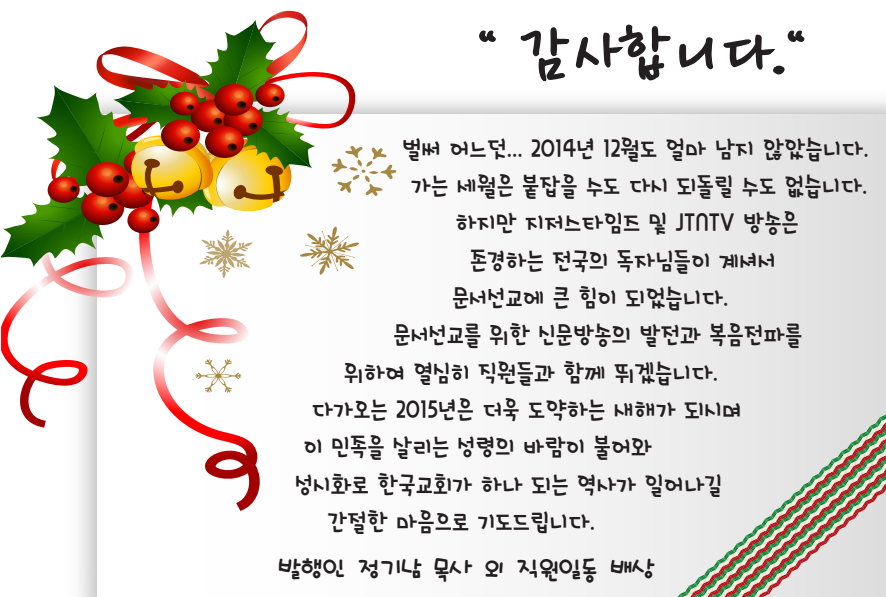
한기총은 오는 12월 23일 이영훈 대표회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 애기봉에서 성탄축하예배를 드리고 성탄트리 점등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같은 사실은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기총이 올해 성탄절을 전후로 남북 평화를 기리기 위해 애기봉에 임시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점등 행사를 하겠다고 요청해 왔다”며 “중요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기총이 세우는 애기봉 성탄트리는 지난 10월 해병대가 철거한 등탑 자리에 9m 높이로 세워졌다.

이 성탄트리는 점등식을 갖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불을 밝힐 예정이다. 애기봉 등탑은 지난 10월 해병대가 노후된 등탑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철거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한기총은 등탑이 철거되자 ‘애기봉 십자가 등탑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애기봉 성탄트리 건립을 추진해 왔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지난달 17일 범시민단체와 함께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애기봉 등탑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대북관계 심리전처럼 여겨져 철거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북한이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에 포격 위협까지 가하는 등 반발해 왔다는 점에서 한기총의 성탄트리 점등을 강하게 비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목회자정의 평화실천협의회를 비롯한 교계 일부 진보단체들도 애기봉 등탑 점등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갈등도 재연될 전망이다.



이효은 목사 화정총현교회 원로목사 추대

대한예수교장로회 화정총현교회는 12월 13일(토)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18-27 소재 본당에서 이효은 목사를 원로목사로, 신오식 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고, 임민철 목사가 제2대 담임목사로 위임받았다.

예장(합동) 서서울노회 위임국장 서홍중 목사의 인도로 화정총현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제2대 위임목사 및 은퇴 감사예배가 진행되어 부도회장 오덕주 목사(갈릴리교회)가 지도를, 서서울노회 고양시총장 전상호 목사(내유교회)

가 고전 11:1절을 봉독하고, 본교회 성가대의 특별찬양을, 노회장 김 건 목사(갈렐교회)는 “나를 분반으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2부 순서는 화정총현교회를 1980년 8월 21일에 설립하여 2014년 12월 13일까지 35년 동안 시무했던 이효은 목사와 신오식 장로를 본 교회 원로목사, 원로장로로 각각 추대했다. 아울러 김영남 목사(총회 98회 서기 / 세소망교회)가 축사를, 본 교회 하모니카 합주단의 특별합주찬양 연주가 있었다.

또한 3부에서 위임국장 서홍중 목사는 임민철 목사를 위임목사로 서약하고, 노회장 김 건 목사가 선포했다. 이어 중경노회장 유선모 목사(원당교회)가 목사권면, 증경노회장 김광범 목사(그리향교회)가 교인권면, 황정식 목사(성문교회), 증경부총회장 백영우 장로(신평로교회)가 축사를, 서서울노회교직자회, 총신 88회동기회가 축하패를 증정했다.

4부는 담임 임민철 목사의 인도로 황옥선, 김미자 권사를 은퇴권사가 된 것을 선포하고, 신오식 원로장로의 특별



감사, 김미영 집사의 특별찬양, 김홍령 집사가 인사 및 광고, 이효은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효은 원로목사를 35년 동안 함께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면서 이 목사를 도와 사역을 해온 송미순 전도사를 공로전도사로 공로패를 증정했다.

나라 삼킨 블랙홀 정윤희 사태를 보면서

박근혜-정윤희-문고리 3인방은 피보다 더 진한 물, 아니 강력본드로 연결된 하나의 특수가족으로 보인다. 이들은 박근혜가 정권을 잡은 것을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것 같지 않았다. 역으로 나라를 가장 잘 부패시킬 수 있는 인사 분야에서 질서를 많이 파괴했다. 이번 사태는 인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난 청와대 내란사건이다.

쏟아지는 보도를 보면 문고리 실세에 잘 보여야 대응이 되고, 이들에 잘 보여야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모양이다. 수석도 문고리 눈치를 보아야 하고 장관도 문고리 눈치를 보아야 한다. 수석들과 장관들은 대통령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문고리를 통해 문서로만 결재를 받는다고 한다. 유진룡 전 문제부장관이 대통령과 독대해서 국장과 과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아마도 장관 독대의 유일한 역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아마도 스스로를 문고리의 머슴이라 자조할 공무원들도 있을 법하다. 구조와 절차 그리고 문화 자체가 참으로 음산한 것이다. 보도들을 보면 장관도 수석도 3인방의 눈에 날까 조심할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 사회 전체가 음산해 보인다. 대통령은 왜 사회를 명랑하게 만들지 않고 이토록 음산하게 만들고 있을까. 내가 오랫동안 군대생활을 해본 바에 의하면 숨길 것이 있는 지휘관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불투명과 소통부재가 곧 음산이 아닐까.

어떤 사람에서는 따뜻하고 해맑은 기운이 풍긴다. 어떤 사람에서는 어둡고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 풍긴다.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에서는 후자의 기운이 풍긴다. 정윤희는 물론 문고리들에서도 후자의 기운이 풍긴다. 이번 문서파동 사건이 검찰에 의해 어떤 식으로 매듭되면 그 후의 사회는 결코 명랑해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점점 더 음산해 질 것이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전국에서는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고, 정의와 도덕은 브레이크 없이 타락할 것이다. 냉소와 유언비어들이 지하를 누빌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문고리를 때어내라 아우성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특수가족은 더욱 더 강하게 뭉칠 것이다. 더욱 매물차게 언론 등 반대자들을 적대시 하면서 5년의 임기를 다 채우려 할 것이다. 박근혜의 표현 그대로 “무서운 것 없이!” 지금 청와대는 국민과 한판 붙어보자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가.

내가 관찰하기에는 박근혜는 고기

대한민국호가 겨우

문고리 실력에 의해

항해하고 있다

이고, 3인방 등은 물이다. 3인방을 때어내라는 주문은 고기에게 물을 버리게 하고 주문하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는 무모한 주문일 것이다. 마치 김정에게 개혁과 개방을 주문하는 것처럼! 청와대와 언론의 대결, 언제 가야 끝이 날까! 국정을 이런 고약-저질 모드로 끌고간 사람들, 과연 국가를 지휘할 능력은 있는 걸까. 이번 파동으로 나는 대한민국호가 겨우 문고리 실력에 의해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은혜캠프 어캠20주년 2015 강력한 기도훈련!

어린이 콘텐츠 : 눈썰매, 매직공연, 뭉치양 WOW~
교사반 8회 WOW~

서울 양평한화리조트	2월 23일(월)~25일(수), 700명, 66,000원(2박4식, 여행자보험, (눈썰매5,000원별도)
충청 삼정부여유스호스텔	2월 26일(목)~28일(토), 500명, 66,000원(2박4식, 여행자보험)
호남 화순금리조트	1월 26일(월)~28일(수), 700명, 66,000원(2박4식, 여행자보험, (눈썰매5,000원 별도)
경남 울산 마리나리조트	1월 19일(월)~21일(수), 390명 / 1월 21일(수)~23일(금), 390명 66,000원(2박4식, 여행자보험)



어캠 문자문의 010-2393-5291

교회학교성장연구소

www.cgi.co.kr

문의전화 010-2393-5291

*무료캠프 >> 1,30(금)~31(토)부여, 삼정부여유스호스텔
무료캠프 문자문의 010-5715-2510

제 34기 성가대지휘자 단기대학



- 대 상** 성가대지휘 예정자, 찬양인도자, 지휘자
주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아카데미 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 20분 ~ 오후 9시 30분
기간 주1반 2015년 1월 13일(화) ~ 2월 24일(화), 아2반 2015년 1월 12일(월) ~ 2월 26일(목)
※ 자세한 커리큘럼은 홈페이지 참조
등록비 29만원(신학생, 서반은 25만원) 입학금: 국민은행 48990-01-390005 프레이즈
등록방법 1. 인터넷 신청 www.praise.ac
2. 예약금 5만원 입금 후 잔액은 1월 9일까지 입금
해입예수원(2호선 신동역 7번 출구 70m)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7-10
참 조 1. 단기과정으로 2개월 과정이지만 지휘 실력 습득이 쉽고
2. 대학 커리큘럼을 보고 지휘하기를 함으로써 실력이 더욱
3. 주1반 교과 수강이 가능함으로 결석 걱정이 없음
4. 90% 이상 출석시 지휘자 2급 자격증 취득함
5. 이 코스는 20년 전통의 성가대 지휘 실전 코스임
문의문의 010-2393-5291

프레이즈예술신학
Praise Theological Seminary
www.praise.ac 010-2393-5291

■ 남현교회 설립 33주년 71명 임직받아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라”

남현교회(담임 이춘복 목사)가 설립 33주년을 기념하여 감사예배를 드리고 71명이 목사, 장로, 성도들,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임직을 받는 등 축하의 장이 되었다. 이춘복 담임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이상복 장로(장로 부노회장 / 성은교회)의 기도와 정인성 목사(시찰장 / 예수소망교회)가 성경 읽후2:15절을 봉독하고, 남현교회 할렐루야찬양대의 특별찬양에 이어 노희장 한희철 목사(상도동신교회)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황동노회장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세가지 중에 첫째는 일꾼, 둘째는 그릇, 셋째는 종으로 비유하는데 성경에 직분 자를 가리켜서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전제하고 성도들이나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일꾼으로 표현하고, 임직을 받는 이들은 일꾼인 것을 기억 하라고 했다.

그래서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요 열심히 일 잘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것이요, 또한 그 말

씀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 고 했다. 또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를 힘쓰라고 하면서 먼저 직분 자는 첫째 열심을 내라, 둘째 헌신 자가 되라, 셋째는 산제물이 되라는 의미로 일꾼이 되라고 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 자



들 자신을 드러기를 힘쓰라고 했다. 또한 직분 자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 자신을 드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2부에 이춘복 담임목사의 진행으로 임직과 서약식을 갖고 장로, 집사, 권사취임을

한 후 공포했다. 아울러 선배장로들은 신임장로에게 성의를 착의하고, 김승관 목사(증경노회장)가 장로들에게 권면을, 박현명 목사(서일교회)가 집사, 권사들에게 권면을, 김상운 목사(부노회장)는 교우들에게 권면했다.

3부 순서로 임직패증정, 기념품증정을 하고, 송영식 목사(경경노회장), 이익권 목사(감월중앙교회)가 축사를, 남순철 장로의 답사, 하늘나라소리단의 축가와 장현용 장로의 인사 및 광고를 김영길 목사의 축도로 마쳤으며, 이날 임직자는 장로장립 4명, 장로취임 1명, 집사장립 20명, 집사

취임 2명, 권사취임 43명, 취임권사 1명 등 71명이 임직을 받았다.

한편 담임 이춘복 목사는 “남현교회 설립 33주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 다. 한 번도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람답고 중장한 성전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33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하면서 중직자들을 세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강한 훈련을 통해 성숙한 모습으로 임직 받는 일꾼들을 볼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분들의 헌신을 통해 남현교회가 한층 더 도약할 것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은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앞으로 2020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임직자들은 성도들이 선출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라며 인사하고 축하했다.

한편 남현교회는 1981년 11월 29일 이춘복 담임목사에 의해 남쪽언덕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로 설립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 8년 만에 새 성전을 건축하여 입당예배를 드렸다. 이후 거듭되는 부흥으로 3차레나 교회를 확장하였다. 2009년 1,500명이 모이는 중형교회로 성장하면서 건평 3,400평에 새 성전을 건축하여 입당예배를 드

렸고, 현재 3,0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을 했다. 남현교회의 성장은 섬김이 과정을 시작으로 확산제자학교, 성장제자학교, 훈련제자학교, 사역제자학교와 평신도성경학교, 큐티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양육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교육열이 높다. 게다가 교육부서가 활성화되어 영아부, 유치부, 1,2,3.초등부, 중,고등부 및 1,2청년부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속 부흥성장하여 현재 800여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출석하고 있다. 또한 남현교회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14개의 사역팀이 만들어져 성도들 스스로가 봉사하고 있으며, 8개의 선교단이 만들어져 복음전파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작은 음악회와 살림의 집, 브니엘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섬기고 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한영훈호 축제, 청년부 일일찾집을 열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남현교회는 태아사랑학교, 아기학교, 자녀돌봄 어머니학교, 아버지학교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또한 남현아름이 문화선교단의 무지

컬공연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문화선교사역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성전지하 2층에 문화체육센터를 개관하여 농구, 탁구, 배구, 배드민턴, 족구 등 다양한 구기종목과 자전거, 등산, 낚시, 바둑 등의 취미활동 동호회는 각종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동호회를 개설했다.

게다가 성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체육문화활동을 제공 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남현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영혼구원을 위해 2020Vision을 세웠으며, 2020년까지 지교회 10개 설립, 단독선교사 10가정 파송, 미자립교회 100개를 후원하는 등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또한 김포 남현교회, 인천 남현교회, 천안 세누리남현교회를 설립하였고, 인천 청라 남현교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단독선교사를 파송했다. 농이촌교회 및 협력선교 90개 처소를 후원하고 있고, C국과 인도네시아에 신학연구원을 운영하고, 총회 세계선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으며,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듬어주는 남현교회(이춘복 담임목사) 공동체는 2020Vision을 통해 한층 더 전진할 것을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춘복 담임목사...



이춘복 담임목사

■ 우리사랑 선교회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정기 총회 열어

"무료 급식을 위한 차량 절실히 필요해"

우리사랑 선교회 12주년 기념감사예배 및 정기총회를 12월 8일(월) 오전 11시 인천 부평구 심정1동 소재 주님의 교회(담임: 유연식 목사)에서 개최되어 사무총장 오성숙 목사가 인도한 가운데 3부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1부는 광영민 목사(예복부흥신학원 대표)의 대표기도로 시작되어 최미영 목사(샤론 위심 선교단 단장)와 단원들의 몸 찬양과, 대표회장 유연식 목사(주님의 교회 담임)의 설교 및 감사패 증정, 헌금찬양에 최인숙 권사, 이사장 이송모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는 선교회 제정보고 및 사역보고가 있는 후 3부는 회원 주관양 목사의 식사 기도도 오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 해 동안 분회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아니한 차은순 목사, 허영희 목사, 김희자 목사를 선정하고 각각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기념하게 하라!” (출

17:14-16)는 제목의 설교를 한 유목사는 선교회를 12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선교회의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과 같은 기념일을 맞아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어 기념이 되게 하며, 여러 선교사역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승리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선교회는 장단기 계획을 세워 사역할 것을 피력하였고, 복음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능력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의 사랑이듯, ‘우리사랑 선교회’의 중심에는 ‘사랑’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으로 열방을 품으라면서 우리사랑 선교회는 지난 5월부터 매달 여주 기도원에서 성회를 열고 있고, 인천 동암역 광장에서 매주 100여명에게 예배 및 무료 급식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교단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해부터는 00국 00지역에 신학교를 세워 현지 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을 갖고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현재 우리사랑 선교회는 배정된 목사가 동암역 광장에서 예배 및 100여명의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차가 노후 되서 폐차해야하는 형편이라 음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승합차나 밴이 필요한 상태라면서 독지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아울러 후원 문의는 H.P 010-4743-7313 으로...

인전 광영민 기자

■ 법무부교정연합선교회(법교선) 신임회장 서호영 선출

"제20대 신임회장 서호영 권사, 최선을 다짐"

법무부교정연합선교회(이하-법교선)가 설립된 목적은 교도소, 구치소의 직원 및 수용자 복음화와 각 교정기관 선교회 지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교정선교의 사역과 목적은 “하나 되는 삶, 증인되는 삶, 공의로운 삶”으로써 하나 되는 삶에는 1. 말씀으로 하나 되는 자(선교회) 2. 직장이 하나 되는 삶, 증인되는 삶, 공의로운 삶에 1. 사랑과 화평을 사모하는 자(용서와 나눔) 2. 낮아지고 섬기는 자(겸손과 봉사) 3.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바른 생각, 행동) 4. 성실을 식물로 삼고 감사하는 자(근면, 평안) 5. 진실한 이

웃이 되기를 원하는 자로 목적을 두고 있는 선교 단체이다.

법교선은 지난 12월 6일(토)에 여주교도소(윤재홍소장)에서 제 56회 교정선교대회 및 순회 예배가 있었다. 이날 교정선교대회 및 순회예배는 교정공무원으로 구성된 법무부교정연합선교회(법교선)의 선교대회 및 순회예배로서 이번에는 정기총회를 겸한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선교대회 및 순회예배에 앞선 정기총회를 통해 제20대 신임회장은 안양교도소 사회복귀과 과장이며 기흥지구촌교회의 권사이자 서호영 서기관이 당선되었다. 서 회장은 첫 여성 회장으로써 앞으로 법교선을 통해 담 안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으로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신을 밝혔다.

특수선교기관인 법무부교정기독선

교 연합선교회는 4개의 지방교정청을 포함해서 47개의 교정기관에 58개 지 선교회로 구성된 연합체로서 회원 수는 2,500명이다. 또한 18대 19대의 회장으로 수고한 김영식(수원구치소 부소장) 집사는 앞으로 법교선을 통해 담 안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기를 바라고 담 밖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이해해 주어야 재범을 줄일 수 있고 담 장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목에 갇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면, 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출소하여 교회로 나올 때 이들을 돌아보는 것 또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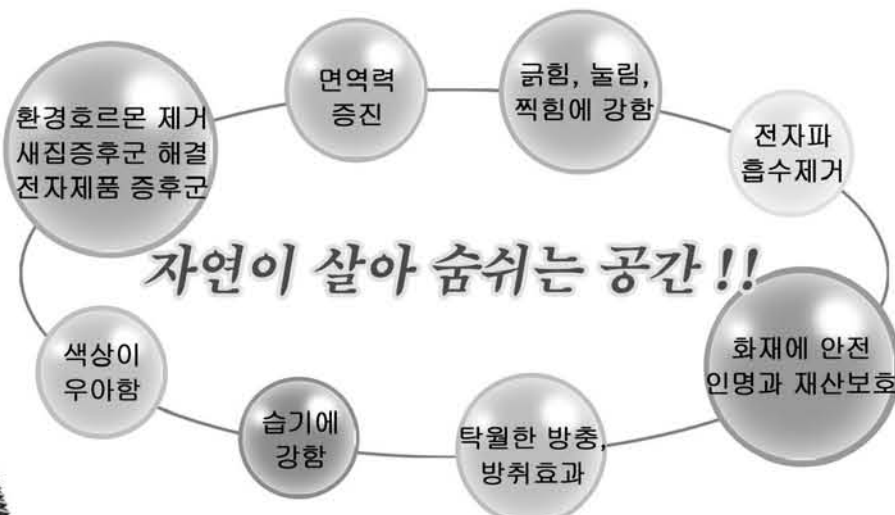
법무부 이기학 기자

최고 품질의 기능성 대나무 명품 마루! 헤스코 G-마루!



특허 및 시험성적서

건강을 생각한 과학마루...헤스코 G-마루는 과학적 환경기술로 생산되는 대나무 원목마루의 명품브랜드입니다.



특수한 삼투기술의 음이온과 원적외선의 결합

- ▶ **환경성** 면역력저하로 천식, 피부병, 감기 등을 유발시키는 폼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환경호르몬을 기준치 이하로 낮춘 과학마루!
- ▶ **내구성** 특허기술로 생산된 헤스코 G-마루는 마루원목에 함유된 수분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휘거나 뒤틀림의 현상이 없고, 방충 및 항균작용이 뛰어나다.
- ▶ **안전성** 불이 잘 붙지 않는 천연방염재를 원목에 함입하여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높여 화재시 유독가스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한 마루입니다.
- ▶ **경제성** 여름에는 습도가 적어 끈적임이 없고 시원하며, 겨울에는 열전도율이 높고 보온성이 뛰어나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 ▶ **기능성** 대나무에 함유된 음이온과 나노기술의 융합으로 대나무 원목에 천연음이온을 함입시켜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특허기술로 천연기능성재료를 삼투시켜 인체에 가장 이로운 5~20마이크로미터의 원적외선을 선택적으로 방사,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를 원활히 도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과학적 환경마루입니다.

〈온돌용〉

〈상업용〉

사용범위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학교, 유치원, 요양원, 호텔, 체육관, 사무실 등

상담문의 : (주)헤스코 ☎1577-0671

E-mail : hesko@naver.com www.hesco.co.kr

■ 경찰청 한국경목총회 제37-3차 임원회 가져

“강화경찰서를 위문하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경찰들을 격려”



경찰청·한국경목총회(이하-한경총총회장 김진수 목사)는 경기도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소재 “오리철판구이”에서 12월 4일(목) 오전 11시 오찬을 나누면서 한경총 37-3차 임원회를 개최했다.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 인도로 고문 이효은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부회장 이창식 목사의 기도로 증경총회장 허식 목사는 담전 1:19절을 인용 “영성과 양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2부 회무에 들어가서 핵심적인 안건은 1. 12월 20일경 전경대 위문과 2. 2015년 1월 22일(목) 오전 11시 대전시 유성구 스파르호텔에 신년하례식을 1박 2일로 결의하고 전국 지방경



찰청과 경목실장 등을 초청하기로 했다. 3. 멕시코선교 기획과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일에 동참하기로 했다. 4. 기타 안건을 다루고 부회장 김창룡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임원 우영문 목사의 오찬기도가 있은 후 고문 이효은 목사가 강화에서 유명한 식당 “오리철판구이”로 오찬을 제공했다.

이어 한경총은 증경총회장 허식 목사,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를 비롯해

15명이 오후 2시 강화경찰서를 위문하고, 강화경찰서는 서장 조용태 총경을 대리하여 경무과장과 각 국장들이 배석 한 가운데 경찰서 회의실에서 國民儀禮를 갖고 양측 인사들을 소개하고 한경총 증경총회장 허식 목사는 총회장 김진수 목사를 대리하여 서장 조용태 총경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아울러 서장 조용태 총경을 대리하여 경무과장은 이효은, 최문자, 이창식, 임용환, 홍향표 목사에게 포상을 한 후 조 총경을 대신하여 경무과장의 환영사와 인사가 있었다. 또한 한경총 증경총회장 허식 목사의 격려의 말씀과 축도로 일정을 마쳤다. 이어 강화경찰서는 한경총 임원일동에게 강화도의 특산물인 순무김치를 선물했다.

■ 제27회 남가주 장애우를 위한 "사랑의 축제"

"거침없이 기뻐하라"란 주제로 성황리에 열려

남가주 발달장애우를 위한 “제27회 사랑의 축제”가 12월 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거침없이 기뻐하라”란 주제로 1000여명의 장애우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랑의 축제”는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들이 연합하여 치르는 행사로 자폐, 다운증후군, 정서장애 등 18세 이전에 장애가 확인된 발달 장애우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며,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장애단체의 홍보 및 정보교환, 댄스와 노래, 신나는 놀이들이 곁들여 지는 남가주 최대의 장애우 축제이다.

1부 예배는 청년부 찬양팀인 Joy & His praise team의 ‘찬양과 경배’를 시작으로 조계문 장로의 대표기도, 소망부 오케스트라의 특별순서에 이어 사무엘상 16:7절 말씀을 가지고 김경진 목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설교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여 줄 수 있다”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피아노

3중주의 특송과 김경진 목사의 축도로 1부 순서를 마쳤다. 2부 순서는 말 그대로 오늘의 분위기를 잘 표현한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교회 봉사팀의 절도 있는 안내와 봉사였다. 지체가 불편한 장애우들이 혹시나 불편을 겪지 않을까 조심조심하면서 연세가 지났지만 많은 자원봉사자들로 한 주회 움직이며 안내하는 모습은 ‘사랑’ 그 자체였다. 또한 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체육관에서 열린 점심식사와 수준있는 축하공연은 연말에 있는 어느 콘서트와 견주어 부족함이 없었다.

식사와 함께 등장한 ‘미션코러스 색스폰 인셈블’의 축하공연무대와 메뉴 소개는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었으며, 간간히 울리는 크리스마스 연주는 이날의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어 순서에 없던 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한 젊은 아가씨가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한 젊은 청년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변을 뒤흔

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상황으로 이순봉씨가 “사랑의 축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초등부사역을 담당하는 전예진 전도사에게 정식 프로포즈를 성공하는 감동의 한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이어 소리엘 복음가수였으며 현재 나성영락교회에서 찬양목사로 시무하는 지명현 목사와 이정열 찬양사역자의 특별순서는 많은 사람들의 감명을 받았다. 그 외에 고조이와 정재인의 듀엣 공연, 나성영락교회 소망부의 토요학교 태권도(WANA태권도) 이태국 사범의 품새와 격파시범, 물댄동산 장애인교회 난타연주(이서영 단장), 피아노독주(앤드루 김, 스티븐 고) 등의 공연이 뒤를 이었고, 공연장 밖에서는 8개의 부스가 다양한 행사로 “거침없이 기뻐하라”를 주제로 맞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행사였다.

한가지 섭섭한 것은 이렇게 아름답게 치뤄지는 제27회

“사랑의 축제”로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여러 가지 현실의 여건 상 이 행사를 지속해 나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현실의 여건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남가주 최대의 장애우 축제인 “사랑의 축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길 바랄 뿐이다.

다니엘 방 기자

■ CTS 감경철 회장'대한민국 대 한국인 대상'수상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 방송인 부문 수상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제10회 대한민국 대 한국인 대상’에 CTS 감경철

회장이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 동방성장연구소,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등 15개 단체가 소속된 ‘대한민

국 대한민국인 대상 시상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 한국인 대상>은 매해 대한민



단체장 조억동 경기 광주시장 △ 교육

국을 빛낸 모범이나 공적이 있는 국내의 인물들을 각 계 부문별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제10회 대한민국 대 한국인 수상자’로는 방송인 부문 감경철 CTS 회장을 비롯해, △ 정치인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지방자치

박신배 총장(그리스도신학대학) △ 기업인 박효석 회장(한독화장품) 등이 선정됐다.

감경철 회장은 △ 21C 국제화 및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춘 혁신적 경영마인드를 통한 방송경영의 안정화를 구축 △ 한국사회의 출산 및 보육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 제시 △ 한국교회 교회학교 활성화에 위한 노력 △ CTS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공공·공익 역할 감당 등이 높게 평가 되었다.

이날 감경철 회장은 “앞으로도 변함

없이 CTS는 순수복음 방송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한국사회를 위한 공공 공익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한국 교회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선교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감경철 CTS 회장은 제5회 한국교회연합과 일치상(2010), 국민훈장 목련장(1996)을 수상한바 있다.

☞



2014년
성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김정열 목사
총무노회



강상희 목사
경전노회



장한국 목사
대한노회



조재호 목사
경기노회



도요한 목사
서울중앙노회



임순중 목사
대전노회



김재길 목사
부산노회



박민규 목사
대한노회



조순형 목사
경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신학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신입생 · 편입생 모집

모집과정 및 지원자격

과정	학과/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야간) 8학기	· 세례를 받은 자 · 학력이나 성별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중퇴한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이 가능 · 위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반드시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함 · 일반대학생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됨
신대원	신학과 (주/야간) 4학기	· 신학부에서 각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출입 또는 이수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에서 중퇴 또는 유학 등으로 학업을 쉬고 있는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 됨
통신신학		· 신학부 및 신대원 수료자 강도사 수위 후 목사안수

전안개혁총회신학

학장 : 김 정열 박사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282-4 (2층)
새예루살렘교회
전화 : 041-534-8765 010-2695-0391

대전개혁총회신학

학장 : 임 순중 박사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3-43 번지 2층
큰산교회 內
전화 : 042-320-9193 010-6413-3456

부산개혁총회신학

학장 : 이은우 목사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947-14
전화 : 010-5511-484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연락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613-3

총회장 : 김정열 목사(010-2695-0391)

서기 : 조재호 목사(010-6266-1331)

■ 제자교회, 반대측의 공동의회는 불법이다

“현재 임기만료된 장로로 구성된 장로들의 당회소집은 불법임에 자명하다”

제자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 가법과 교회법아래 소속노회가 없는 무노회 소속으로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어느 노회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제자교회는 무노회 소속이다.

한서노회는 2011.7.11 ‘서한서노회’와 ‘한서노회로 분립하기로 결 의하고 2011. 9월경 대한예수교장로 회 제96회 총회에서 한서노회 분립위 원회(위원장:손상률)가 구성되었다.

2012. 9월경 제97회 총회는 분립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분립 전 한서 노회’를 ‘서한서노회’와 ‘한서노 회’로 받아주었다. 97회 총회를 기 점으로 분립 전 ‘한서노회’와 ‘분 립 후 한서노회’는 명칭은 같으나 성질은 다르다. 예나하면 한서노회는 분립 합의서 2항(2012.1.19)에 “제자 교회는 이번 분립에서 보류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분립 후 한서노 회’는 합의서 2항의 문제를 해결하 지 않고는 제자교회에 대 한 어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제자교회는 교회측이 추대하는 목사의 종교 활동을 보호 받을 권한이 있다.

2013년 12월 2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가합 685 출입방해 및 예배방 해금지 가처분과 2014년 10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4가합36 출입 방해 및 예배방해 금지가처분 판결에 서 교회반대측은 교회측이 추대하는 목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지도자의 지 도 아래 예배 기타 종교활동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 다는 결정을 내리바 있다. 제자교회 측은 교회측이 추대하는 목사 또는 지도자의 설교 및 목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다시한번 확인한 것 이다.

3) 제자교회는 소속노회를 법적 절차에 의해 확인소송중이다.

또한 제자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에 의하여 2013년 3월 3일 제자교회의 노회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통하여 제자교회는 국가법으로 서 한서노회 소속 노회가 정하여 졌으

나 99회 합동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2014년 6월 3일 총회주관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통하여 소속노회를 정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회 반대측은 용역 100명 을 동원하여 ‘합동총회는 망했다.’는 대형현수막과 만장을 걸어 놓고 장례 퍼포먼스를 하는 등 극렬한 반 대로 총회가 지시한 공동의회를 무 산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소속노회를 확인하기 위한 ‘2014가합53592 노회소속확인을 위한 재판’이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고등법원 가처분 결정문에서도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사건의 주된 쟁점인 2013.3.3.자 결의로써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소속 노회가 변경되었는지 등에 관해서 체권자 교회의 재적 교인들, 참석 인원 등에 관한 면밀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하여 가려져야 할 것을 보인다.’고 판시하



였다.

4) 교회 반대측이 주장하는 임시 당 회장 및 당회서기는 부적격한 자이다 제자교회는 1명의 당회장과 17명의 당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7장로는 2010년 9월 총회 재판을 통해 제명, 출교, 면직이 확정된 7인 전 장로이며, 나머지 장로들은 2014년 11월 30일 현재 임기가 만료된 장로들이다. 제자교회는 당회장과 당회원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재 임기만료된 장로로 구성된 장로들의 당회소집은 불법임에 자명하다

또한 현 임시당회장은 이미 남부지방법원 2013고약 22540(2013 형제 7581) 결정문에서 임시당회장이 불법임을 결정해준바 있다.

한서노회 임원회에서 제자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선임된 후 제자

교회의 임시당회장을 자처하면서 2012.12.16 경 피고인이 주재한 제자 교회 임시당회를 개최하고 ‘제자교회 소유 부동산의 대표자 명의를 권**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서기에 당회 결의사항으로 당회 회의록에 기재하게 하고 작성자란에 ‘임시당회장 목사 권**’이라고 인쇄된 문구 밑에 자신의 자필 서명을 하고 그 옆에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인장을 날인하였다

권한 없이 자신이 제자교회 임시당 회장 자격에 하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 자격을 도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당회회의록을 작성하고, 2012.12.21경 대리인을 통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과의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 당회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게 행사하였다.

결론 / 그러므로 2014년 11월 30일 한서노회에서 가관한 임시당회장 목사가 주축이 된 공동의회는 이러한 이유에서 불법이라 하겠다. 그렇기에 교회반대측이 결의하였다는 아래와 같은 사항은 불법단체의 의결된 사항이라 할 것이다.

▲ 정삼치씨와 한서노회 소속이 아닌 목사 및 제명 출교자 교회 출입금지의 건에 대한 관련소송은 당회에 위임하기로 결의

▲ 당회 허락 없는 예배, 기도회, 각종 집회, 종교활동관련 금지(분리예배금지)의 건에 대한 관련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기로 결의 ▲ 기타 교회분쟁처리 관련 건은 추후 제자교회 총유물에 대한 관리보존행위를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결정을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는 안건을 각각 의결하였다.

이에 제자교회의 노회 소속은 외부 기관의 결의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1) 제자교회 교인들이 2013.3.3. 공동의회로 서한서노회로 선택했고, 2) 상위기구인 총회에서도 확정하지 못한 것을 노회가 결정할 수 없다. 3) 노회소속 확인 소송에서 최종 가려질 것이다. 4) 존재하지도 않은 당회가 소집한 반대측 공동의회는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 한국교회를 새롭게 건강하게 세우는데 힘쓰겠다

한교연 4대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취임 감사예배



한국교회연합 제4대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의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2일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교계 지도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한국교회 일직과 연합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다.

전광훈 목사(대신 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함동근 목사(기하성 총회장)의 기도와 주대준 장로(한직선 대표회장)의 성경봉독, 영안교회 찬양대의 찬양, 장종현 목사(백석 총회장)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 제하의 설교, 백석 오케스트라의 축하연주 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이신용 목사(기성총회장)의 사회로 대표회장 활동 영상이 상영되고 김춘규 사무총장이 양병희 대표회장을 소개한 후 양병희 목사가 취임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김요셉 목사(증경대표회장)와 박위근 목사(증경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직전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세기총 대표회장) 순으로 격려사를, 이영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황용대 목사(NCCK 회장), 황수원 목사(한장총 대표회장), 정영택 목사(통합총회장), 김경원 목사(한목협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미래목회포럼 이사장), 한기홍 목사(미기총 대표회장) 순으로 축사가 이어졌다.

장종현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교회를 위기에 빠뜨린 것은 분열”이라며 “갈라진 한국교회를 다시 모으고 추락한 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부족한 사람을 한국교회연합 제4대 대표회장에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한교연 대표회장으로

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 나가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양 대표회장은 이어 “한교연을 구심점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섬기고 소통하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면서 “한국교회 앞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과 대안제시에 보다 역점을 두고 대사회 대국가적으로 한국교회의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격려사를 전한 증경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는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한국교회에 큰 지도자가 되기를”, 증경대표회장 박위



근 목사는 “한교연 회원교단들의 중지를 잘 모아 한국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직전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초대교회가 당시의 사회를 주도적으로 리드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한국사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를 한국교회연합이 중심이 되어 리드하는 역사의 새로운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 증경총회장 림인식 목사는 축사에서 “한국교회가 사람 안에서 화합하

고 단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가 하나된다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 NCCK 회장 황용대 목사도 한국교회가 하나된다고 “나도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말해 연이어 박수를 받았다.

이어 각 기관이 축하패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소감식 목사(경기총연 대표회장)가 축시를, 최화진 교수(미국 나약대 음대 교수)가 축가를 부른 후 이종운 목사(기독교 학술원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3부 순서는 서기 이태운 목사의 진행으로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가 임원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을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4회기 임원,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명단 참조>

임명식에서는 공동회장을 대표해 우중후 목사(합신 총회장), 부회장을 대표해 전종기 목사(진리 총회장), 상임위원장을 대표해 박종언 목사(인권 위원장), 특별위원장을 대표해 김진홍 목사(홍보위원장), 심동섭 목사(교정위원장) 김용관 목사(목회와신학연구위원장)이 각각 임명장을 받았다.

한교연 제4대 대표회장에 취임한 양병희 목사는 고려대학교(문과)와 동대학원 정책대학원(정치학 석사), 감리교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고, 백석대학교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예장 백석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서울경찰청 경목회장, 서울시 교시협의회 회장, 경찰청 교경중앙협의 회 대표회장, 사)남북함께살기운동 이사장, 고려대 목회자교우회 회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동북아한민족협의회 대표회장, 영안복지재단 이사장, 한국성서공회 이사, 기독교연합신문 사장을 맡고 있으며, 예장 백석 영안교회에서 34년간 시무중에 있다.

경인백석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학장 정기환 목사
(D.Ed., Th. D.)

● 지방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힘없이 무너지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백석총회 인준신학교로서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경인백석신학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127(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H · P : 010-2956-9191, 050-5555-9191
E-mail : Keyone209@hanmail.net

· 교학처장 : 김남수 목사 · 학생처장 : 박준민 장로
· 서무담당 : 이인애 · 교무담당 : 전병희

● 설립목적

본교는 신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총회인준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본교양식) 1통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 전형안내

· 전형기간 : 12월~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신입면접

● 특전

· 본 교단은 여목사 안수제도가 있습니다.
· 성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 우수한 학생은 해외 연세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학과

과정	학과	기간	자격	비고
학부	신학과	8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8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댄스위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원격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 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술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 여 과정을 이수함
편입생	각학과	1~3년	타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 과정 후 편입생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 이변 학기 교수진

장기(한교연조직신학) : (D.R.E.,Th.D)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이현우교수(이스라엘학사)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명철교수(역사신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정광용교수(고대근동학) : (Ph.D)(澳)University of Sydney

(英)University of London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ät Bochum

최병관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광보교수(주교교역)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중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大學校大學院

김남수교수(교회성장학) : (D.Min)(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소정교수(음악사) : (D.S.M)(獨)Goettingen National University

박상국교수(교회음악)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院

강석현교수(신학신학) : (D.Min)(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실천신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마호인교수(성경신학) : (D.Min)(加)Canada Christian College

정현모교수(선교언어) : (中)中國南京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역사신학) : (D.Lit)(蘇)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加)Canada Christian College

무용학과 : 김희선, 조은희, 최재복, 전병희교수진

■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적자인가? 흑자인가?

(마 25:14-30)

본문은 주인이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나누어주었으며 돌아온 후 그 결과를 놓고 상과 벌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경우 신앙생활에서 시작과 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출발과 마무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종들은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다음의 교훈들을 찾아봅시다.

1. 달란트 분배의 원칙입니다.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각각 재능대로 맡기십니다. 달란트 분배가 다섯, 둘, 하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섯을 맡을만한 사람에게 다섯을 주셨고, 둘을 맡을만한 사람에게는 둘을 주셨고, 하나를 맡을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갈무리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달란트 분배의 원칙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주인의 뜻대로이고, 둘째는 각각 재능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맡은 달란트는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의 가능성과 능력을 보시고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2. 달란트 관리의 원칙입니다.

(16절)에 “바로 가서”라고 했고 (17절)에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망설임 없이 달란트를 받아마자 즉시 장사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준 목적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땅에 묻어두면 돈의 유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 경제 질서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로 가서” 달란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16절)에 보면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경제 용어로 말하면 손익결산에서 흑자 결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는 장사는 절치는 장사입니다. 달란트의 경우 역시 남는 것이 없으면 안됩니다. 남기라고 주신 것이니까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남겼는지 우리 자신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보아야 합니다.

3. 달란트와 상급을 생각합니다.

다섯을 더 남긴 종과 둘을 더 남긴 종에게 주신 칭찬과 상급이 동일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21절)에 다섯을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

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분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4.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성격입니다.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두려워하여” 감추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즉 실패할까봐, 실패한 후에 주인한테 문책 당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큰일을 못합니다. 결국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일했고 얼마나 남겼습니까? 얼마나 게을렀고 모자랐습니까? 겸허하게 우리들의 결산 보고서를 만들어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이윤을 남기십시오. 바로가서 장사하십시오. 신앙적으로 적자투성이가 되지 맙시다. 범사가 배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분지 사장

■ 성탄 메시지

성탄은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확증

온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요 5:24)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1:12)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도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

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4~5)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느 교주가 대신 죽었으며 부활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질병과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WCC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처사요, 예수님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

리게 하는 처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 24:24)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언급하셨듯이 오늘 날 이단들과 WCC와 같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만방에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이범성 목사
한보협 대표회장

■ 감사로 한 해를

예수 탄생의 복음

(로마서 1장 1~7절)

할렐루야~ 성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림절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주 예수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현재 성탄절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속화 되었다. 옛날 이방신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문을 제기하고, 성탄절을 지키지 말자는 등 기독교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날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기념해서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지내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 12월 25일 날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성탄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지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마다 많은 성탄절을 지키면서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겁니다. 누구입니까? 산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성탄절에 산타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 성탄절의 기본의미를 모르는 것이지요. 세속적인 문화에서나 성탄절에 산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탄절의 주인이 2000년 전에 말기유에서 나신 아기 예수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친히 자신을 내어주는 선물을 주시기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낮은 말기유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왜 이땅에 말기유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자집에 나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말기유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자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기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종”이라

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 탄생의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죽은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네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 요약된 설교는 본보 JTNTV방송 www.jtntv.kr “설교와칼럼”을 참고하세요...

네 가지 사실을 말씀 드렸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 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 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 한해가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곽영민 목사
예복부흥신학원 대표

■ 성탄절 칼럼

성탄절을 맞이하며..

아주 오래전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름날, 런던지역에 폭우가 내렸습니 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 농가의 문을 누군가가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열고 나가보자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이 없어서 그러니 여유분이 있다면 우산 하나를 빌릴 수 있겠습니까?”

농부는 그다지 달갑지 않았으나 딱히 거절할 핑계거리가 생각나지 않아 집 안으로 우산을 찾으러 들어갔습니 다. 출만한 우산들이 몇 개, 그의 눈에 보였지만 아까운 마음에 우산들 중에 당장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낡고 부러진 우산 하나를 골라서 들고 나왔습니 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산이 별칭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어떡하죠? 다 이 모양인데....” 우산을 빌려온 남자는 “괜찮습니다. 부러진 우산이라도 빌려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인사를

하고 문 근처에 서있던 일행으로 보이는 한 여자에게 그 우산을 씌우고 그 곳을 떠났습니 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농부의 집에 상자로 된 우편물이 하나 보내졌습니 다. 농부는 궁금해 하며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속에는 그가 며칠 전 빌려줬던 다 낡고 부러진 우산이 예쁜 편지가 한 장과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본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 다.

편지에는 “우산을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쓰여있었고 그 글 아래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인이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에게서 우산을 빌려간 사람은 그 나라의 여왕이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우산을 빌려온 일행 중 한 명이 자기 나라의 여왕인줄도 모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낡고 망가진 우산을 건넸던 것을 무척 후회하고 안타까워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살고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시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에 너무도 익숙해져서서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흥청망청 들떠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이번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순수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사모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 독자 제위께

본 신문사와 인터넷신문 JTNTV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JTNTV방송은 선교비 및 광고비와 구독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48,000원은 우편요금과 종이 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본보와 JTNTV인터넷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모든분들께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주시지 않은 독자님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내내 강권하시길 바랍니다.

주후 2014년 12월 21일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110-003-518810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피종진목사 이사장:정기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정기남목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겸음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j@naver.com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 요한계시록1장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啓示”(4)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을 바로 알아야

(지난호에 이어)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이며 두 촛대니라.(계 11:4) 결론적으로 속 4:12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금 기름 발리운 두 올리브나무 가지가 계 11:4에서 두 올리브나무이며 두 촛대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은 계 11:3의 두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의 금 기름은 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밝히셨고, 이는 두 증인들이 성령의 일곱 영들로 충만함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증거를 마치게 되면 모두 죽임을 당하고(계 11:9)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죽은 두 증인들에게로 들어가 죽었던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의 시체를 땅에 두지 않고 하늘로 올려잡니다(계 11:11).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니 그 지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대한교회 노회장
연로부흥협 부총재

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칠천 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계 11:13-14)

그리고 위의 13-14절 말씀같이 두 증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의 수가 칠천 명인데 이것을 가리켜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때는 둘째 화가 시작되는 때라는 것이고, 첫째 화도 이미 지나갔다는 말씀이 됩니다.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고 죽임당할 때 첫째 화는 이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죽어서 시체가 사흘 반 후에 하늘로 올라갈 때 둘째 화가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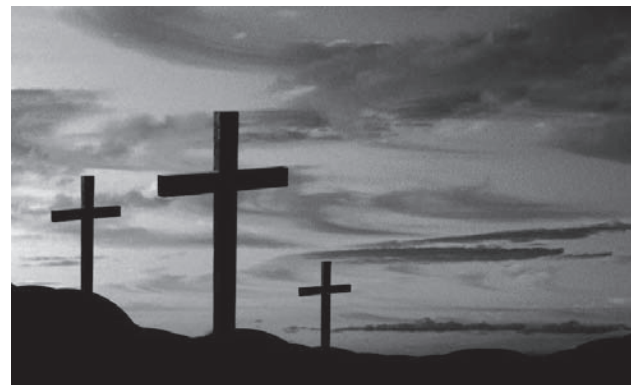
그러면 두 증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때가 언제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2천 년 전 얘기입니까? 아니면 주님 재림 직전 환란이 시작돼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 시작되는 때의 일입니까? 두 증인이 속 4:2, 12, 14절 말씀에 의해 일곱 금 촛대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두 증인이 나온 일곱 금 촛대 교회는 2천 년 전의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까, 종말의 환란 때의 교회입니까? 이를 계 11:13-14절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주님의 뜻과 일치 되지 않게 말하고 있습

니다.

결론적으로 본문 4절의 요한이 편지하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계 1:11에 열거한 일곱 교회로서 역사적으로 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계 1:12의 일곱 금촛대 교회는 스가랴 4장의 금 촛대 교회를 가리킵니다. 11절의 일곱 교회와 12절의 일곱 금촛대 교회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11절의 2천 년 전 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는 12절의 일곱 금촛대를 계시하기 위한 계시기관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런 측면에서 서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가랴 4장의 일곱 금촛대 교회는 금 기름 발리운 두 올리브나무 가지, 즉 두 증인이 있는 교회라고 깨달았습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 교회는 2천 년 전이 아니라 둘째 화가 일어날 때 두 증인의 시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때에 있는 교회를 가리킴으로 종말의 때,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3장의 일곱 금촛대 교회는 종말의 순교자들과 두 증인들이 배출되고 이기는 교회입니다.

또 “금 기름”과 “일곱 눈”은 스가랴 4장과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실제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은 성전이 주님이 오셨을 때 허물어 졌습니다. 요 2:19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삼 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참 성전입니다. 진짜 성전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



즉 재림 주를 맞이하는 성전이 금 촛대 교회입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건물 성전을 짓게 하면서 종말의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참 성전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또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5절의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문안인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표현 것이 비밀입니다. 계시록에서만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므로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해야 하는데 본문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분”입니다.

“지금도 계시고”는 전에는 계시지 않았다가 지금 계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본문 1절의 “그의 종들”에 대해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과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 대한 성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 제3부 사도영성 그 이론적 배경

제1장 「사도영성」에 대한 이해

‘영성’이란 말은 한편으로 ‘기독교적 용어’이다. 그 이유는 ‘영성’이라는 말의 시작과 사용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통해서 나온 것이며, 또한 성경적 어원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영성’이란 말은 ‘반기독교적 용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영성’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와 개념은 기독교 이외에 다양한 종교들이나 종교 대체적인 체계를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심리학이나 경영학과 같은 일반 사회학문들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성’이라는 일반적 의미는 기독교 안에서 의미하는 영성의 의미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오히려 기독교의 진정성을 해치거나 왜곡시키는 요소로 다가오기도 한다. 따라서 ‘반기독교적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라고 할 때, 그 신학적 범주를 어떻게 두는가에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기독교 용어로 이

해되기도 한다(자유주의적 신학에 바탕을 두는 혼합주의적인 종교 다원론적 신앙에서 보면 가장 기독교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영성이 인본주의적 수평적 영성이라면, ‘사도영성’은 ‘하나님 중심의 수직적 영성’이라는 독특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1. 영성의 어원적 정의

모든 단어는 마치 한 생명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의미의 변화를 갖게 된다. 성서에서 사용되는 ‘영’(spirit)이라는 단어와 달리 ‘영성’은 그런 면에서 많은 의미의 변화가 있었다. ‘영성’(靈性)은 한자의 의미로 ‘신령한 성품’을 의미하고, 영어, ‘spirituality’는 ‘정신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다.

영성을 정의함에 있어서 영성이라는 말 자체는 단 하나의 개념이나 경험으

로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라틴어의 ‘영성’(spiritualitas)은 5세기 초 처음 제롬(Jerome) 서신에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spiritus’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 1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용어는 ‘성령에 의한 삶’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는 육과 영의 관계성이 지금처럼 극단적인 이원적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영성의 어원적 뿌리는 ‘호흡’을 의미하는 ‘spiritus’이다. 이것은 성서에서의 ‘영’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다. 호흡과 관련된 영성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 영성은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본질(principle)이다. 두 번째로 성령은 신앙인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성서적 의미의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의 내부와 그것을 넘어선 현실적인 영적 교섭으로 이끌어지고 영적인 일들에 민감한 채로 불들려 있다. 이

러한 의미에서의 영성은 종교적인 실제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신학자 ‘존 맥쿼리’(J. Macquarie)는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바람을 넣어 생령이 되었듯이 영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규명되면서 정리하여 있지 않는 바람과 같다.”고 하였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영은 인간들의 삶과 역사를 창조하시는 역동적인 실체로서 인간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세상 안에서 현존 활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들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위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은 인간 속에 ‘현존(existence)’하시고, 인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세상 창조 시 다른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영의 분배를 허락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본성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성부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것도 성령에 의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

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

‘영성’(靈性)은 한자의 의미로 ‘신령한 성품’을 의미하고, 영어 spirituality’는 ‘정신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다. 영성을 정의함에 있어서 영성이라는 말 자체는 단 하나의 개념이나 경험으로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라틴어의 ‘영성’(spiritualitas)은 5세기 초 처음 제롬(Jerome) 서신에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spiritus’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 1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용어는 ‘성령에 의한 삶’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는 육과 영의 관계성이 지금처럼 극단적인 이원적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영성의 어원적 뿌리는 ‘호흡’을 의미하는 ‘spiritus’이다. 이것은 성서에서의 ‘영’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다. 호흡과 관련된 영성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 영성은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본질(principle)이다. 두 번째로 성령은 신앙인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성서적 의미의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의 내부와 그것을 넘어선 현실적인 영적 교섭으로 이끌어지고 영적인 일들에 민감한 채로 불들려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영성은 종교적인 실제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신학자 ‘존 맥쿼리’(J. Macquarie)는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바람을 넣어 생령이 되었듯이 영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규명되면서 정리하여 있지 않는 바람과 같다.”고 하였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영은 인간들의 삶과 역사를 창조하시는 역동적인 실체로서 인간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세상 안에서 현존 활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들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위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은 인간 속에 ‘현존’(existence)하시고, 인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세상 창조 시 다른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영의 분배를 허락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본성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지은이 **홍황표**
발행처 도서출판 아이네오
주 소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00-8 서원빌딩 512호
전화 02) 3471-4526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에녹부흥사회 5주년 기념 및 정기 총회

- 일시 : 2014년 12월 24일 오전 11시
- 장소 : 부여국제금식기도원
- 주소 : 충남 부여군 옥산면 홍연리 2-2(옥산북로 164-43)
- 문의: (간사)010-6778-0651

*하나님의 신실한 부흥사로 쓰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모십니다.
*직급 임명이 있사오니 기존 회원분들은 회비 완납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조직 편성 회원 명단

대표회장 곽영민 목사	고문 이환호 목사	총재 이재갑 목사	제1부총재 정기남 목사	제2부총재 함선교 목사	감보디아대표회장 곽에스더 목사	일본대표회장 임태우 목사	중국대표회장 주찬양 목사	성경회장 이재명 목사	실무회장 배정희 목사
실무회장 한사라 목사	실무회장 최권숙 목사	실무회장 변만옥 목사	공동회장 김선우 목사	공동회장 이학덕 목사	공동회장 강연이 목사	공동회장 최승유 목사	전속찬양단 김창숙 찬도사	사무총장 김성림 목사	간사 김영애 사모

에녹부흥사회 인천광역시 남구 능해길5 (남구 승의 1동 441-45)
사무총장 H.P 010-9610-8508 간사 : H.P 010-010-6778-0651

축성탄

또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2:11)

대한예수교 장로회 에녹 총회는
2014년 5월에 세워진 건전한 교단이며,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교단 가입문의: (간사)010-6778-0651



곽영민 목사



임태우 목사



김영애 사모

에녹부흥사회

인천광역시 남구 능해길5 (남구 승의 1동 441-45)
사무총장 : H.P 010-9610-8508 간사 : H.P 010-6778-0651

에녹부흥신학원

대표 곽영민 목사	학술원장 이재갑 교수	연구원장 임태우 교수	이사장 배정희 목사
---------------------	-----------------------	-----------------------	----------------------

교수 김선우 교수	교수 김성림 교수	교수 박형모 교수	교수 박에스더 교수	교수 김정기 교수	교수 박경자 교수
---------------------	---------------------	---------------------	----------------------	---------------------	---------------------

교수 임요한 교수	교수 김창숙 교수	교수 이환호 교수	교수 주찬양 교수	교수 변만옥 교수	교수 김영애 사모
---------------------	---------------------	---------------------	---------------------	---------------------	---------------------

http://kiea.onmam.com

중식 무료 제공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2시(학술원)
※장소 : 등불교회, 예수능력치유센터
※주소 : 인천 남구 능해길5(구, 남구 승의1동 441-45)
※문의 : (사무간사) 010-6778-0651

에녹 총회 신학원, 연구원, 학술원생 수시 모집
수업일 : 매주 금.토 오전10:00부터~
몸찬양(무용,국악,찬양) 매주(목)오전10:00~

■ 우슬초 12월 정기집회

에조브(우슬초)선교회 12월 정기집회 열어



에조브(우슬초)선교회 회장 박용숙 목사는 12월 6일(토)오전 11시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소재 주성경각 장애인교회에서 정기집회를 열고 오찬을 갖는 등 선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도했다.

에조브선교회(회장 박용숙 목사)는 필리핀선교, 농아난민 돕기 기금 및 난치병, 희귀병, 농아환자 돕기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하여 뜻을 같이한 사역자들로 구성되어 발족된 “에조브(우슬초)선교회” 단체이다.

신길한 목사(주영광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 남보석 목사(국제신학교학장)의 기도, 최호식 목사의 성경봉독(출20:4~6)으로 회장 박용숙 목사(우슬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손전식 목사(영락농교회), 허식 목사(한국경목총회 증경총회장)가 축사를, 주성교회 찬양단의 헌금송이 있는 후 유성희 목사(방주교회)가 격려사를, 김정수, 배종심 회계집사가 선교보고를 하고, 최요셉 목사의 광고 및 소개가 있었으며, 곽호범 목사(한기농대표 직전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오찬 및 친교를 위하여 유성희 목사의 기도가 있는 후 축사를 하면서 덕담을 나누었다.

■ 블루엔블루(Blue & Blue)2014년 미주투어

임진호 – "지나가리라"



미주에서 CCM 기획사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One Heart”(대표 피터박 목사)가 한국의 실력과 뮤지션으로 구성된 Blue & Blue (블루엔블루)를 초청하여 12월 11일(목) 케슬 지역 저녁 하우스 콘서트를 시작으로 28일 LA 나성영락교회 공연까지 유료와 무료 공연 등을 포함한 총 12차례의 다양한 미주 콘서트 투어를 진행하게 된다.

블루엔블루는 한국에서는 독특하게 보사노바 / 재즈로 인정받고 있는 밴드그룹이다. ‘보사노바’란 브라질 삼바에서 나온 한 형식으로 삼바보다 멜로디가 감미롭고 타악기가 덜

강조된 장르로 1960대에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흑인여성”을 뜻하는 삼바가 주로 일반 서민층의 음악이라면 보사노바는 중, 상류층의 음악으로 시작됐고, 삼바와 재즈의 혼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재즈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도 ‘보사노바 재즈’라는 이름으로 역수입 하는 기현상을 낳기도 했다.

밴드의 리더인 황종철은 유재하가 요제에서 은상을 수상했고, 현재는 한국 CCM계와 가요계에서 프로듀서와 싱어송 라이터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뮤지션이다. 또한 밴드 보컬인 임진호는 드라마 연애시대 OST 및 보이스 코리아 등 다양한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력과 감성보컬이다. 그녀의 가녀린 모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청아하고 깨끗한 목소리와 더불어 많은 경험에서 표출되는 여유는 조용하지만 활발한 밴드의 선율과 함께 그냥 “예쁘다!”라는 표현 외에 더 이상의 할 말이 없을 듯하다.

밴드 블루엔블루는 현재 3집까지 발매되어 있으며, 한국 재즈 차트에서 상위권에 머무는 그룹이다. 이번 미주투어는 3집 타이틀인 “지나가리라”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지나가리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로서, 슬픔도 절망도 모두 지나간다는 희망의 목

소리와 더불어 동시에 기쁜날도 사라져 겸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다룬 감미롭지만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이 외에도 팜파사노바인 “동문서답”, “연애 후 반전”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등의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미주투어는 노스캐롤라이나 - 워싱턴 - 뉴욕 - 뉴저지 - 로스앤젤레스의 순서로 진행되며, 3주간 밴드 전체가 투어하게 된다. 투어의 모든 스케줄과 음향 등의 시프트는 One Heart Entertainment 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티켓을 구매하거나 각 지역 담당자를 통해서 공연의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기획 관계자는 “이번 블루엔블루 미주투어는 그동안 미주공연들과는 다른 색다른 사운드를 선보일 것을 자신한다”며 “보사노바의 밝은 리듬과 재즈의 깊이 있는 음악적인 색깔이 더해져 젊은층에서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 까지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수 있는 공연일 될 것이다. 특히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가족이나 모임 등에서 단체로 관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연말을 정리하면서 뜻깊은 공연의 시간이 될 것임을 약속했다.

공연문의: One Heart Ent.
(이예은 간사), 213-235-5941
다니엘 방 기자 미주타임즈

■ 수원 원돌산 기도원 동계성회



원돌산수양관 성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개인, 가족, 교회 단위 참석자들에게 ‘믿음을 10년간 앞당기는 부흥 프로그램’으로 인식된다. 지난 28년간 수양관을 찾은 연인원 백만 명 이상이 영성을 회복했다며 간증을 쏟아 냈다. 또 윤석전 목사가 선포하는 생명력 넘치는 메시지로 개인과 교회의 영성 치유와 회복을 넘어 사회와 국가 부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매년 한국과 세계 각국에서 참석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외국에서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가 이 성회에 관심을 두고 참석해 뜨거운 영성을 체험하고 있다. 이들은 3박 4일간 받은 은혜 그대로 자국으로 돌아가 윤석전 목사 초청 성회를 개최해 은혜의 줄기를 이어간다.

원돌산수양관은 수려한 조경과 쾌적한 환경 속에 60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을 완비하여, 규모 면에서 국내외 최적 조건을 갖췄다. 성회 참석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으며, 영적인 신앙생활을 체험한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영성, 인성, 도덕성, 가치를 회복하게 하여 한국교회 미래를 다지는 진취적 역할을 수행한다.

강사 윤석전 목사는 28년 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연희동 지하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해 현재 연세중앙교회를 세계적 규모로 부흥시킨 바 있다. 윤석전 목사의 열정적이고 영력 넘치는 메시지는 참예한 개인의 영성은 물론, 전체 위기에 놓인 한국교회와 세계 기독교에 영적 혁명을 일으킨다고 평가받는다. 올해 진행할 동계성회에도 그동안 은혜를 경험한 이들의 등록 문의가 빗발치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심장이 거세게 뛰고 있다.

영육 간에 유익한 시간으로 새해 시작 ■신년축복대성회(연세중앙교회)=2014년 12월 31일(수)부터 1월 3일(토)까지 연세중앙교회에서 열린다.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성도라면, 새해 첫 주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영육 간에 가장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2015년 동계성회 첫 출발인 이 성회는 영육 간에 얹어 댄 각종 문제와 질병을 말씀으로 해결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한 해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한다. 다가오는 2015년을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

함은, 음주, 폭력, 게임·인터넷 중독, 성적(性的) 타락, 가출, 자살로 거침없이 방종하던 청소년들은 3박 4일간 열리는 성회에 참석하여 부모의 사랑과 수고를 감사로 받아들이며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깨닫는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 받아 거듭난 학생들이 전교 상위권 모범생이 되고, 비행 청소년이 신학교에 진학해 과거 자신과 같은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사역에 몸바치겠다고 다짐하는 등, 삶이 복되고 생산적으로 바뀔 간증이 줄을 잇는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를 부흥케 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변화케 하는 원동력으로 자리한다.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 성회 ■제43차 초교과 청년·대학 연합 동계성회=1월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진행한다. 감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앞에서 미래의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다. 청년들은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대중문화와 사이버문화에 중독되고, 향락과 퇴폐풍조에 빠져든다. 이런 청년들을 거냥해 열리는 이 성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뚜렷한 인생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해 정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생명의 에너지만이 청년·대학생을 타락한 세상 풍조에서, 부모와 벌이는 갈등에서, 이성 문제에서, 진로 문제에서 자유롭게 한다. 젊음의 열기가 거룩하게 터져 나오는 생동감 넘치는 초교과 청년·대학 연합성회를 계기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케 할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오리라 확신한다.

섬김의 바른 자세를 제시하는 세미나 ■제37차 초교과 직분자세미나=직분자세미나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진실하게 총성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직분자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과 목회 사역을 신실하게 섬기는 교회 중직으로 변하게 한다. 은혜 받고 변화한 직분자 덕분에 목회자도 “목회에 새로운 장이 열렸고 목회할 맛이 난다”며 함께 웃고 기뻐할 정도로 ‘직분자 필수코스’로 주목받는다. 직분자가 지나야 할 마음가짐과 섬기는 예배도 제시한다. 기간은 1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다.

우상숭배 타파하는 영적 승리 넘쳐 ■설날 축복 대성회(연세중앙교회)=연세중앙교회에서는 민족 명절마다 성회를 열어 교파를 초월해 전국에서 성도 수천 명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특히 설 명절이라는 분위기에 힘입어 수천만 명이 우상숭배 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시기에 열리는 이 성회에서는 우상숭배를 떠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치유와 건강, 이적과 능력 같은 영육 간의 부유를 실질적으로 누린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놓고 중보하는 기회도 있다. 올 연휴에도 전국 수많은 성도가 가족 단위로 참석해 우상숭배를 이기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여 믿음을 앞당기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 2월 17일(화)부터 20일(금)까지 3박 4일간 연세중앙교회에서 열린다. 등록비는 무료며, 식사는 각자 해결해야 한다.

예수 생애 재현하는 목회자로 변해 ■제51차 초교과 목회자부부 영적 세미나=2월 23일(월)부터 26일(목)까지 개최하며 담임 목회자와 사모를 대상으로 한다. 강사 윤석전 목사가 성령 충만한 실제 목회 체험을 바탕으로 목회자들이 처한 영적 실상을 허심탄회하게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인본주의 목회에서 신본주의 목회로 이끈다.

또 이론과 현실을 쫓는 목회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영적 목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수 생애를 재현하며 주님 심정으로 영혼 생원을 열망하는 목회자로 변하게 한다. 영적 역량을 잃고 고민하는 수많은 목회자에게 목회 능력과 사명감을 되찾아 주는 세미나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국외 목회자와 선교사가 대거 참석해 이 세미나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목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가능케 해준다.

원돌산수양관 동계성회는 매년 개인별로 참석할 뿐 아니라 단체 참석도 늘고 있으며,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자 하는 이들에게 효과적인 영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성회 등록 문의> 02)2060-5114
http://hindol.yonsei.or.kr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눅 1:28)

성기는 분들
부 목 사: 오정선 신임목 모은은
파송선교사: 임재선 김연이 김미경
인문기 김진태
협동목사: 장정화(은미) 서기욱
전도사: 최정희 진연순 윤영목
교육전도사: 송선택
사무장 로: 고재연 송영문 천은상
정승환 이현필 주종철
김정서 김영규 김학진
김선호
휴직장 로: 임복희
은퇴장 로: 노남규
협동장 로: 이병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MokpoJuan Presbyterian Church

본교회: 목포시 청호로159 (북항동)
TEL. 061-272-4908 FAX. 278-0693
남악예배당: 목포시 남악2로 52번길 남악크리치아동 301
TEL. 061-287-0692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2014년도 목표:
“어두움에 빛이 비치라”

•강도사: 장정훈 이진영, •전도사: 장성철,
•반주자: 함진경, 한승이

에배간찬가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요 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벽 예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요일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6시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춘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http://jlcn.kr

표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성중앙교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평화장 정대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성중앙교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지 66(화정동 5층) 전철(3호선 화정역 1번 출구)
TEL 031-974-7091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제목: 존귀한 자

성경: 잠언 19장 1-11절
찬송가 447장

세상에 비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최선을 다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정을 절제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를 되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계명을 지키는 자

성경: 잠언 19장 13-29절
찬송가 349장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이며 동시에 그분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인간 행위 자체보다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곧 신앙이며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할 수 있으며 천국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계명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지켜질 것입니다.

제목: 독주(毒酒)

성경: 잠언 20장 1절
찬송가 375장

술에 미혹되면 어리석어집니다. 술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술은 사람의 마음을 거만하게 하고 마음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한다고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일컬음받던 노아가 술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도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술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속지 마십시오

성경: 잠언 20장 11-19절
찬송가 212장

속이고 미혹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 첫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영적, 육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속이는 것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행위이며 그로 인해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여러분은 무엇이 속임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남을 속이지도, 남에게 속지도 마십시오.

제목: 가정교육

성경: 잠언 20장 20-30절
찬송가 235장

가정교육이 살면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더 나아가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공경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부모를 멸시하는 자식을 죽이라고(출21:17)까지 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고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 스스로 보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22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부모 공경, 그리고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 철저히 교육했습니다. 이 시대 우리 가정에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임을 기억하십시오.

제목: 공의와 정의

성경: 잠언 21장 1-3절
찬송가 420장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나라는 공의와 정의를 더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악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입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목: 영위의 결과

성경: 잠언 21장 4-10절
찬송가 539장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고(5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7절)고 했습니다. 즉 악한 행위의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목: 의로운 행동

성경: 잠언 21장 11-14절
찬송가 433장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교훈을 얻으면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 더해집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의 호소를 듣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악한 사람으로서 곤경에 던져지게 되며 공휴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사십시오. 성도라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부를 변호하는(사1:17)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생명과 공의와 영광

성경: 잠언 21장 15-31절
찬송가 555장

본문은 믿는 자들이 관심을 갖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생명과 공의와 영광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그 사실이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공의와 영광은 오직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목: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 잠언 22장 1-3절
찬송가 378장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재물을 무척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질이 풍족하면 그만큼 삶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재물을 의미하는 금과 은을 선택하면 자기 욕구대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재물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대로 즐기며 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쓸 줄을 모르는 것이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슬기로운 자

성경: 잠언 22장 4-10절
찬송가 569장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피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겸손하고 선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게 됩니다. 단,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결한 자

성경: 잠언 22장 11절
찬송가 258장

구약시대 성소는 정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도 부정한 자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사52:11)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

에게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딤후5:22)고 말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여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지저스타임즈, JTNTV방송사장
라이즈월드 미션 총재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백석TV, CTS 칼럼리스트

제목: 지혜자

성경: 잠언 22장 12-21절
찬송가 272장

솔로몬은 지혜와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권하고 있으며 지식에 귀를 기울이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식은 아름다운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영혼의 성별, 공동체의 복지와 관계되는 것으로 이 지식은 결국 교만에서 떠나 인생의 심판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지식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해로운 사귀

성경: 잠언 22장 24-27절
찬송가 337장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는 무척 중요합니다. 잠언은 악인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며 말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고(잠1:15)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격정적인 사람과 사귀는 것은 해로운 사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이와 같은 해로운 친구를 사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삶에 기쁨과 용기가 충만해져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새벽 종소리

한국기독교는 1901년부터 교회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다.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나라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와 확고한 신앙사상으로 어려운 고난 길을 걸으며 교회를 세운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가정을 빌려 주일예배를 드리며 새벽기도회를 하였으나 농사일에 지쳐 새벽잠을 깨울 수 없어 작은 종을 울려 새벽기도회를 가졌다.

점차 신자들의 확장으로 힘을 모아 작은 예배당을 짓고 둥근 통나무 기둥을 세워 종대를 만들어 새벽종을 친 것이다. 새벽 4시에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단잠에서 깨어나 새벽예배를 드렸다. 그 종소리는 점차 확대되어 각 지역별로 교회들이 종을 치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도 ‘교회 종소리 따라 국민계몽으로



서영웅 목사
퓨리탄 성로교회
(본지 성임이사)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여 국민모두가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청소를 하면서 국가 재건을 위해 힘을 합하였다.

모든 공직자 들은 재건 복을 입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교회의 새벽종소리는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부흥과 발전의 역할을 한 것이다.

오늘의 교회는 높은 건축물에 십자가에 네온 형광등을 달아 교회의 표식을 하고 있다.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6차선 도로변에 우뚝 솟은 가톨릭 성당에서 정오의 종소리를 듣게 되었다. 낮 12시 정각에 울리는 종소리에 가든 길을 멈추고 지난날의 교회 종소리를 생각하였다. 성당에서 울리는 정오의 종소리는 약 1분 정도 울리면서 정오를 알람과 동시에 신자들의 묵념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오늘의 교회는 종소리는 없지만 시간적으로 배정된 예배에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다.

2014년도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어느 해 보다 국내적으로 시끄럽고 많은 사건사고가 있는 해였다. 특히 세월호 선박사고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인이 주목하고 마음 아픈 사고였다.

정치는 끝없는 정쟁을 이어 왔으며 국가의 안정을 찾을 수 없을 정도

로 여·야는 대립 하였으며 각계 분야별로 비리로 얼룩 되었다. 특히 국방에 있어 방산 비리 등은 국민들로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다. 국방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우리의 처지에 함없는 비리와 얼룩진 군 기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군군을 만들어야 한다. 군은 국방의 초석으로 군기가 없는 군은 나라경제만 축낼 뿐이다.

북한 김정은의 쌍안경은 계속적으로 남쪽만을 바라보고 있다.

북한 메스컴은 이제 자신 있게 청와대는 안전하다고 생각 하느냐며 순식간의 남침공격을 대비하고 있다. 자유와 경제가 앞선다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가 없어 의미가 있다. 6·25전쟁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김일성은 남침하였 으며 수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다. 오늘 우리는 완전

한 무장을 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국내에 산재해 있는 RO조직 같은 좌파조직들이 국가 변란 시에는 제일 먼저 국가 전복을 위해 붉은 완장을 차고 우리의 우익 인사들에게 무차별한 죽음을 만들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우리는 6.25남침 전쟁을 보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자당의 입씨름에 목에 힘을 주면서 입신 재물에만 전전한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 발전은 순식간의 낙마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민 모두는 주변의 좌파조직을 색출하여 안정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새벽종을 다시치자. 정치적으로 취해 있는자들에게 날카로운 메스를 가해 주어 확고한 국방아래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새마을 정신을 다시 갖도록 하자.

새벽 종소리와 정오의 종소리가 국민모두의 마음과 사상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제 송년의 밤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는 혼란 사회 속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살아 왔다. 이제는 정치 지도자 들이나 국민 모두가 지난날을 털어 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다. 교회의 새벽종소리와 정오의 종소리가 우리 모두의 희망으로 새겨지기를 바란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2년 12월

2-7 부흥성회(예복교회)
10-15 필리핀선교대회
17-19 예원교회(한구식 목사)
23 천보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013년 1월

1-3 과천예복교회(강영수 목사)
7-9 장안성결교회(강석진 목사)
10 강남성결교회(김성광 원장)
14-16 길신교회(김동환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1-23 참종교교회(김상 목사)
28-30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2013년 2월

1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5 침사평교회(강신조 목사)
4-7 갈멜산기도원(이복관 원장)
11-14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8-20 광정성결교회(남무우 목사)
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2 임마누엘기도원(이수영 원장)
25-28 비전교회(조정현 목사)

2013년 3월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3년 4월

1-3 광릉나교회(김상훈 목사)
8-11 성산수양관(문종균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6 정기노회
22-25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29-1 주우리교회(이규형 목사)

2013년 5월

3 C세빌 TV예배
6-8 침사평교회(강신조 목사)
11 주향기교회(김홍수 목사)
13-15 신일교회(정병수 목사)
17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9-6월1 2주 연속 특별 십자가대회

2013년 6월

3-5 해곡연합수련회(김원)
10-13 문자평교회(최태식 목사)
14 오산리금식기도원(국해원 원장)
17-19 나눔예복교회(최종덕 목사)
20-21 국내미자립교회 순방
24-27 진주기도원(김신홍 원장)

2013년 7월

1-3 은혜교회(유진재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1-13 성산교회(신승중 목사)
15-19 신안교회(신승중 목사)
21-27 예복교회 특별기도성회(담임 소진우 목사)
28 사평교회(김상수 목사)
29-31 한기전교회연합수련회

2013년 8월

2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3 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 원장)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8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2-15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9-22 갈멜산기도원(이복관 원장)
26-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3년 10월

4 노회선교위원회예배
7 대산미디어예배
7-9 별원교회
14-15 정기노회
17 부흥사연수원특강
20 천보산기도원
21-23 인천성산교회
27 선교사파송예배
28-30 관양장로교회

2013년 11월

4-9 선교지방문
11-13 행복한교회(박성일 목사)
18-20 청원제일교회(최준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5 사평교회(김상수 목사)

2013년 12월

2-8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9-15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16-16 임마누엘교회(이성현 목사)
30-31 송구영신예배준비기도

2014년 1월

1-3 모란순복음교회(임병열목사)
4 능곡영성교회(송한철목사)
6-9 소망교회(조성복 목사)
13-16 목안장로교회
17 한얼산기도원
19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22 영광교회
27-30 광은기도원

2014년 2월

3-6 갈멜산기도원(이복관 원장)
9-12 인천연세교회
1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7-19 대구열린교회
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3 성회교회
24-26 대구중앙교회

2014년 3월

불철 축복대심방
원천교회(최진근목사)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014년 4월

7-10 광선수양관(방민석 원장)
1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4-17 축복교회(배성은 목사)
21-22 정기노회
28-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4년 5월

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2-14 나눔예교회(최종덕)
19-21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25-31 특별십자대성회(예복교회)

2014년 6월

2-4 비전교회(양승식 목사)
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9-13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16-19 별원교회(서형범 원장)
23-27 선교지방문

2014년 7월

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7-10 예덴교회(안화옥 목사)
14-17 모리아기도원(조선휘 원장)
28-30 전교인여름수련회

2014년 8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4-6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1-14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8-21 갈멜산기도원(이복관 원장)
25-28 천문기원을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4년 9월

1-2 중부지역 연합성회
3 성산기도원(박정원 원장)
5-17 성산교회(유경중목사)
22 은혜성결교회(정승훈목사)
22-25 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9-3 선교지방문

2014년 10월

6-8 천호성결교회(여성삼목사)
12 성문교회(이종래목사)
13-14 정기노회
14-16 진주기도원(김진홍원장)
20-23 인천세월교회(강구식목사)
26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7-27 예덴교회(이원종목사)

2014년 11월

3-6 서광교회(배영길목사)
10-12 경원교회(이원경목사)
23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4-27 포천제일교회(권혁주목사)

2014년 12월

1-4 순년축복성회(예복교회)
7-10 중앙전교회(변찬목사)
15-19 필리핀선교자컨퍼런스
21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9-31 의성 안평연합성회(장현수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 특집탐방 / 무당이 바친 땅에 “전원교회와 국제금식기도원” 세워

곽 목사의 비전은 “청소년 비전센터와 노인들의 복지센터 건립”



이날 만나본 곽에스터牧사는 광주가 교향이며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처음 교회를 알았으며, 6학년 2학기부터 서울에 올라와 학교를 다니며 성장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잊어버렸었다. 그러나 30살 때 주님을 다시 만났고, 32살에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았고, 그 후 신학대학원을 나와 경기도 양평에서 10년간 기도원을 운영하다 충남 강경읍에 내려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던 중 2006년도에 부여군 옥산면 홍연리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여성 목회자로서 국내외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뜨고 있는 곽에스터 목사(54)이다. 그는 1,000여 평 땅에 동

지를 들고 새소망전원교회 / 부여 국제금식기도원을 세웠다. 성전 뒤로는 병풍을 두른 듯 수목이 우거진 산 사이에 물이 흐르고 있어 아름답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듯이 교회와 기도원이 포근하며 아늑한 게 보금자리가 따로 없다.

국제금식기도원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졌다.

이름도 성도 몰랐던 무당이 정성을 드리던 땅인데 그녀는 조건 없이 1000여 평의 땅을 목사인 제게 바치겠다고 내놓았으며 땅을 등기상 하자 없이 서류를 받았습니 다. 사실 저는 2개월 전 산이 있고 물이 흐르는 곳에 기도원을 짓겠다고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은 제가 일본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게 그 땅을 축복으로 주노라” 하고 응답해 주셨고 이곳에 와보니 기도했던 내용대로 산이 있고 물이 흐르는 땅을 약속대로 하나님은 주셨습니 다.

하지만 단돈 100만원도 없었지만 휴가 중 전도사의 여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부부가 1,000만원씩 건축현금 2,000만원을 드렸습니 다. 담양에서 모 권사도 1,000만원의 건축현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날 이후 끊임없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건축현금이 들어와 성도들의 손으로 세면을 이겨가며 교회와 기도원을 건축

하게 되었습니다. 곽에스터牧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이 산골에 교회와 기도원을 운영하면서도 일본과 중국, 필리핀 등 해외집회를 나



가는 부흥사이다.

어린이들의 교육은 매우 특별하다!

저는 신명기 6장을 주제로 어린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옛날에 출애굽 시켜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이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성경에 손목에도 메고, 중간에도 붙이고 뒤편에 가면서 걸어다니며 가르치라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은 TV도 모릅니다. 오직 예배와 기도이며, 항상 밤이면 예배를 장년들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시

기와 질투와 미움과 걱정 근심이 없는데 저희 교회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아이가 뉘만 지나면 손가락을 들고 스스로 밥을 먹게 합니다. 부모가 밥을 먹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형식이 없는 예배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역은 물론 학교에서도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욕하고 싸우고 속이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욕할 줄도 모르고, 싸움도 모르고, 남을 속일 줄도 모릅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는 것 외에는 모



정신,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는 정신을 갖게 한 결과 오늘날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곽 목사의 목회비전은 아이들과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 일!

우리 기도원 공동체에 자녀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청, 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믿으라고 인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몰랐습니 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생,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변절되지 않게 말씀으로 더 강하게 훈련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도원에는 한국의 유명한 성서학 박사의 장인도 계십니다. 그분의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분인데 이곳에서 고집적인 술과 담배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훈련을 받고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에 앞장서는 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은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장학생들입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십일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까지 드리는데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경박사들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을 부르며 아멘하며 말씀을 받는 모습들은 정말 귀엽

고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아이가 태어난 것도 몰랐습니 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까지 속 한번 켜는 일이 없고, 잘 자라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충성된 일꾼 세분의 집사는 우리교회 자랑에서...

●성미순 집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충만한 교회로서 자부심을 갖는다고 했고, 10년째 곽 목사님을 섬기고 있다며 자랑하고,

●장서영 집사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돈독하여 미루는 일이 없이 헌신하며 아이들도 은혜가 충만하다고 했다. 곽 에스터 목사님과 만남은 1년 쯤 되지만 자랑스럽다고 한다.

●황용숙 집사는 곽 목사님을 9년 전에 막내아들이 몸살 병으로 하루밖에 살 수 없다는 청천병력과 같은 사형선고가 내려졌을 때 옆 병실에 심방을



릅니다.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주셨다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찬송 254장(통 186)과 시 1편 1절을 묵상하는 이유는?

24살 때 부도로 인해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을 때 성경찬송을 끼고 어느 산기슭에 앉아 찬송을 부른 후 자살을 시도할 때,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를 부르고 자살을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부릅니다. 또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을 제가 항상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주어 주어 하

오셔서 만나게 되었고 그날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낳아서 다음날 퇴원을 하게 되었고, 아이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알았으며 이곳에 들어와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세분 집사의 공통점은 우리나라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다시 부흥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면서 청소년 비전센터를 세우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데려와 대한학교와 노인들의 노후를 위하여 복지선교센터를 건립하는 일이라며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14)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 소망 전원교회 (부설) 부여 국제금식기도원
new hope country church



담임목사 : 곽에스터

표어 :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선교사이다.
ALL christians are ALL missionaries.

협동 목사 : 김형근
교육전도사 : 강정희 최영민
지 휘 자 : 강정희
반 주 자 : 장서영 김대희



예배안내

주일1부예배 :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 오후 13:30
수 요 예 배 : 오후 19:30
금요철야예배 : 저녁 21:00
주일학교주일 : 오전 08:00
학생회 주일 : 오전08:00

* 주 소 : 충남 부여군 옥산면 옥산북로 164-13

* 목사관 : 041-832-4951 / 070-8265-0632 / H.P 010-7600-2249

* http://cafe.naver.com/21newhope H.P 010-9275-0633

* JTNTV, 지저스타임즈, 경찰기독일보(운영이사), 언론부흥사협의회(상임총무)

■ 경찰공직생활 30년, 나의 비전은 선교사...

"임봉택 목사, 경찰공직생활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러..."



임봉택 목사(경찰공무원 경위)

임봉택 목사(경위)는 꿈이 선교사라고 한다. 경찰공직생활 30년,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사로 제2의 인생을 살겠다며 강한 결심을 갖고 있다.

경찰에 입문하여 한때 인질강도 흉악범을 체포하기까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격투로 이가 두 대가 부러지는 등 어려운 고비도 많았지만 어느덧 경찰공무원생활 30년이 흘렀다. 물론 불행보다는 경찰로서 보람된 일들이 더 많았다. 목사로서 또는 경찰학교 교수로서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내 인생 제2라운드는 베트남에 있는 교단 신학교(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 들어가 교수가 되는 게 꿈이라한다. 오로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한다.

임봉택 목사(55)는 김복례 사모(5)와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아들은 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다. 임 목사는 30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박사과정까지 마쳤으며, 기존의 경찰관들을 상담하는 가운데 임 목사처럼 트라우마가 많다는 알았고, 경찰생활 2년이면 각종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그들을 치유해주고 싶어 경찰교육원에 와서 ‘공감힐링과정’을 만들었고, 올해 2년 차인데 기존의 경찰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경찰관들이 치유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찰관들이 근무에만 몰입하다 보니 가정에 소홀한 점이 있는데, 2014년 올해 ‘부부행복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으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사모님들과 경찰관들이 꺼안고 통곡하고 울며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 과정을 임 목사가 개설했고, 게다가 경찰교육원이 생긴 이래로 ‘청소년힐링캠프’를 처음으로 개설했으며,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캠프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생들에게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다. 경찰공직생활 30년 동안 이 3개 과정을 개설한 것에 대해 참 의미를 둔다. 앞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는 것, 경찰에 가장 요구되었던 그런 것들에 일조를 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는 임봉택 목사...

또한 감성개발센터를 만들게 된 동기는 강남경찰서 관할의 뇌물사건, 경

찰관들의 비리사건 등 도덕적인 부분의 사건들이 발생하자 경찰관들의 인성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고 이곳에 커리큘럼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 됨됨이, 도덕성을 교육하는 인성과목이 있고, 청렴성, 인권, 리더십, 비전들을 총괄할 수 있는 센터이며 3년 전에 만들어져 정착되었으며, 이후 힐링센터가 추가되어서 경찰관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개인 심리 상담을 돕는 센터이다.

경찰하면 야간 근무 때 취객들과 싸우는 것이 정말 힘들다. 강도보다, 살인범보다 취객들과 두~세 시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악성민원인을 만나면 가장 힘들고. 야간 근무 때, 밤새워서 시달린다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다.



임 목사의 목회비전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주시는 것이요, 또한 담임목사 사역을 주실지... 경찰교육원에도 있고 중앙경찰학교도 교회가 있는 데 하나님에 어느 곳으로 보내주실지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경찰교육원은 8개 과가 있다. 현재 감성개발센터의 교수이며 계급은 경위이다.

■ '충격' 가수 조연 26세, 미국 LA서 교통사고 사망

“꽃다운 나이에 3중추돌 사고 2일 병원서 끝내 하늘나라로”



가수 조연(본명 이연지, 26)이 지난 달 미국의 추수감사절 전날인 2014년 11월 26일 직장에서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조연은 한국에서

2001년 14세의 어린 나이로 김형석 작곡가에 의해 가수로 데뷔해 1집 앨범인 '퍼스트 러브(First Love)'를 발표했다. 그 당시 발랄하고 깜찍한 외모와 가창력으로 '제2의 보아'로 불리며 많은 각광을 받았었다. 그 뒤 가수의 길을 중단하고 미국 LA 근교인 세리토스에서 살았으며 2012년에는 '슈퍼스타 K4'에 깜짝 출연해 많은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한국 연예계에 복귀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와 회사원으로 근무했으며, 간간히 지역 교회

나 선교단체로부터 출연 섭의를 받고 활동하던 중 사고소식이 전해지며 관계자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 지인은 "추수감사절 전날 퇴근길에 다니던 직장 근처에서 3중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혼수상태로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깨어나지 못하고 지난 2일 끝내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장례식은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인 가운데 조용히 치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니엘 방 기자 미주타임즈공>

■ 두레교회, 교회분쟁의 전형대로 사태 전개되고 있어

“의혹 해명 불구, 이문장 목사 반대파들은 퇴진 요구”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두레홀 수익금 횡령 의혹과 주택 구입 관련 대출금 의혹 그리고 <깊은데로> 출판사 재정 관련 의혹은 취재결과 허위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분쟁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분쟁을 겪은 교회들은 의혹이 해소되며 사태가 종결돼도 분쟁으로 인해 잃어버린 수년의 아픔이 상처로 남는다. 아픔을 이기고 더 크게 발전하는 교회도 있지만 분쟁으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는 곳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외부에서는 두레교회 사태를 보며 우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두레교회의 경우 교회분쟁의 전형대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일부 성도들에 의해 재정요금이 제기되고, 우후죽순으로 다른 의혹들이 확대 재생산된 후 결국에는 이단성 문제로까지 비화돼 교회와 목회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양상이다.

분쟁의 시작이었던 <깊은데로> 출판사 재정 관련 의혹, 두레홀 수익금 횡령 의혹, 이문장 목사의 주택 구입 관련 대출금 의혹 등은 허위임을 밝히는 증거가 나와 모두 해명되고 있으며, 기타 의혹들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단성 의혹은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통합교단 총회임원회가 보고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것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문장 목사 반대파들은 계속해서 이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 측은 의혹이 해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문장 목사와 대립

하는 이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문장 목사 반대파들의 행동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교회 측은 “이문장 목사 반대파들은 <깊은데로> 출판사 재정 관련 의혹, 두레홀 수익금 횡령 의혹, 이문장 목사의 주택 구입 관련 대출금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정작 이문장 목사를 노화에 고소할 때는 위의 의혹들을 주장하지 않았다”면서 “애초에 근거 없이 기획된 음해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의혹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문장 목사 반대세력의 움직임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두레교회 원로 김진홍 목사가 후임 이문장 목사와 여전히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김진홍 목사는 두레교회 교인 여러 명을 사회법에 고소한 상태로,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분쟁을 교회 내적으로 수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두레교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김진홍 원로목사와 원로목사를 따르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 장로들이 후임 이문장 목사를 흔들어 기득권을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보는 시각과 이문장 목사의 리더십 부재로 교회가 분쟁에 휩싸였다는 시각이다.

어떤 시각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이문장 목사에게 초기에 제기됐던 의혹이 허위였다는 증거가 나왔고, 교회 측의 공식적인 조사에서도 음해임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성도들이 노화에 고소한 사



항은 “대부분 죄과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난 상황이다.

한편 이문장 목사와 대립하고 있는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이하 두바협)’ 세력은 ‘예닮선교센터’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예닮선교센터’는 ‘두바협’의 핵심 인사가 운영하는 학원 건물에 자리하고 있고 ‘두바협’ 구성원들은 이곳에서 기도회를 갖고 있다. 특히 이들은 두레교회에서 사임한 세 명의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두레교회를 사임한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것은 그들을 설득해 교회로 복귀하게 한 후 당회에 참여시켜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려는 것이라는 말이 들리고 있다. 실제로 금전 지원을 받고 있는 목회자 중에는 담임목사님을 음해하는 주장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인사가 있기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이문장 목사 반대파의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교회 측은 이문장 목사 반대파들이 교회 내에 ‘두바협’이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나아가 사단법인까지 내며 별도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교회분열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단법인 예닮선교센터’ 측은 지역복음화 사업, 국내 전도 및 해외선교사 파견·지원 사업, 의료봉사 및 구제활동을 하기 위해 단체가 설립 됐고 그에 따른 사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Merry Christmas!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성령의 양식 '주'는 영이시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지루함이 없습니다(고후 3:17)			
예배 안 내	오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3:30	찬양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세탁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3: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1058번지 구로 우성A상가 202호
이사장 H.P 011-287-0317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병섭 목사

한보협은 보수교단으로서 뜻을 같이 할 교단과 단체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430501-01-255544
(사단)한국보수교단협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7길 25.6층
(화곡동 호용빌딩)
☎02)2608-2190, Fax 02)2608-2191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어목성장학원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 원목위원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전인지유센터 원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죽어있는 고통에서 고침받은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이거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도 고침받은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은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은
- ☆ 김복자 : 교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36-5. (3층)
☎ 053-752-8238
010-8537-8291

■ 영광교회 제17회 예수님을 빛내는 축제 성황

"성극 찬양전뮤지컬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학생부 축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마5:14)의 말씀과 “희망의 주”라는 주제로 찬양과 댄스, 풍트와 성극 찬양전뮤지컬로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2014년 제17회 학생부 주관 “예수님을 빛내는 축제(이하-예빛제)”가 지난달 30일(주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영광교회(담임목사 조강수)에서 열렸으며 큰 감동과 축제로 성황을 이루었다.



담임 조강수 목사의 기도으로 시작된 이날 축제는 오프닝에 랫잇비, 트러블 메이커의 명사회가 진행되면서 성령 충만으로 찬양의 열기는 후~~큰 달아올랐다. 이어 풍트와 서울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잔조, 여자댄스, 성극,

전제합창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었다.

2014년 올해로 영광교회 학생부 주관으로 열린 제17회 예수님을 빛내는 축제는 한 점 나무랄 때 없는 최고의 연가, 풍트, 서울예술고등학교의 찬조출현으로 수준 높은 연극과 찬양이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 관계자의 의하면 연습량은 짧았지만 기도로 준비한 결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성극 찬양전뮤지컬”이다. 성존항이와 이몽룡의 러브스토리, 변사또와 방자의 익살스러운 연가, 두 그루의 나무(사탑)로 역할을 맡은 출연진의 성극 뮤지컬연기는 코믹하면서도 감동적인 한편의 드라마였다. 성극 찬양전뮤지컬에서 찬양하는 성도로 묘사하면서 결국 어떠한 역경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정조를 지켜낸 찬양이처럼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부단장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겠다는 의미이다.

고전 15:57~58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아멘

찬양전뮤지컬 연가자들은 “곧 오시네”를 합창을 했다.



1. 공중에 나팔이 울려나고 온 땅이 흔들릴 때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 모두 다 무너지리 세상의 헛된 영광 썩어질 헛된 우상 사망 권세 모두 깨뜨리신 주님 발 앞에 무너지리,

후렴) 모든 영광과 권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권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를 타고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를 열창했다.

이러 출연진 전원합창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를 찬양 한 후 담임 조강수 목사는 혼신을 다하여 찬양과 풍트, 성극찬양전뮤지컬, 서울예술고등학교 출연진 등 전원을 칭찬과 박수로 격려하고, 또한 제17회 예수님을 빛내는 축제를 위해 기도해 준 성도들을 인사와 격려한 후 축도로 마쳤다.

■ 강원도 정성군을 복음화로 심령대흥성회 열어

"강동노회(합동) 정선시찰회 17개 교회 연합으로 성회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강동노회 정선시찰회 주관으로 지난 12월 1일(월)부터 3일(수)저녁까지 강원도 정성군 북평면 북평5길 소재 북평제일교회(담임 이중하 목사)에서 인천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를 강사로 초청 “하늘문을 여소서”라는 주제로 심령대부흥성회를 열고 저녁, 새벽, 낮 집회 등 1일 세차례 집회를 가졌다. 이번 심령대부흥성회는 정성군 17개 교회가 정선시찰회 연합으로 개최되었다.



시찰장 신광옥 목사(여량교회), 시

찰서기 이중하 목사(북평제일교회), 시찰회계 배진식 장로(여량교회)가 시찰회 임원을 맡고 있다. 정선시찰회에 소속된 17개 교회이며 자립교회가 10곳이라고 한다. 이들 교회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심자가를 붙들고 꾸준히 사역을 하고 있다.

이중하 목사는 광주, 목포, 전남노회를 거쳐 북평제일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다. 1967년 7월 20일 설립된 교회를 21년째 섬기고 있으며 3남매를 두고 있다. 이곳은 광산촌으로 한때 부요했고 100여명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폐광촌이 되자 사람들이 다 북평을 떠나고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처음 6년간은 40만원의 사례비를 받는 등 어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 교회가 일어지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50여명의 성도들이 모인 자립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정선시찰회에서 인천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계기는 TV를 통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너무

도 큰 은혜를 입은 이중하 목사(시찰회서기) 사모는 조 목사를 강사로 추천을 했고, 시찰회는 3개월간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전화를 걸었고 조강수 목사의 승낙을 받아 이번집회가 성사되었다고 했다.

12월 1일 저녁부터 시작된 집회에서 마지막 날까지 시찰회에 속한 17개 교회가 연합으로 이루어진 심령대부흥집회를 통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으며, 영권이 강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영적인 설교였기 때문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마지막 날은 성전이 성도들로 가득했으며, 북평



제일교회 성도들도 얼굴이 밝아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다.

또한 이중하 목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성회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했다면서 이곳에 있는 여량교회에서 조강수 목사를 강사로 2015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집회 일정이 정해졌다고 했다. 또한 인재기독교연합회에서 2015년도 연합집회 강사로 조강수 목사를 초청하는 등 강원도 곳곳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인천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는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부사장 및 언론부흥사협의회 부총재로 신문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피종진 목사 초청 12월 국내·외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bles33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1(월)~5(금) - 태국(Thailand) 방콕 경서교회 (김영수 목사) ☎ 66-89-241-3691
7(주)오후 - 서울 글로벌복음교회 (이애리 목사) ☎ 010-4870-7572
8(월)오후 - 2014 서울 · 세계 평화의 밤
8(월)~10(수) - 음성 새예배순복음교회 (장현주 목사) ☎ 010-8291-0017
14(주)저녁 - 서울 우리중앙교회 (박영관 목사) ☎ 010-3683-1005
15(월)~17(수) - 전주 크신능력교회 (김동력 목사) ☎ 010-4524-8812
18(목)~19(금) - 서울 은둔리교회 (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20(토)오후 - 서울 청파중앙교회 (김영우 목사) ☎ (02) 713-2051
20((토)오후 - 마드림 전영울동메스티발 ☎ (041) 531-7216
주최 : D.W.M 마드림세계선교회 (이사장 피종진 목사)/마드림예수선역원(원장 전성준 목사)
22(월)~23(화) - 일본(Japan) 나라타 동경신학교 (학장 정스태반 목사, 대학원장 피종진 목사)
24(수)저녁 - 일본(Japan) 나라타 예수사랑교회 (정스태반 목사) ☎ 090-6523-9118
25(목)저녁 - 일본(Japan) 나라타 감동산림식기도원 (원장 김태실 목사) ☎ 070-8625-9118
26(금)오전 - 일본(Japan) 나라타 동경신학교 (학장 정스태반 목사)
31(수)저녁 - 남서울중앙교회(피종진 원로목사, 여찬근 담임목사)
송구영신축복대안수기도회 ☎ (02) 3411-9191 / (02) 3411-9111 / FAX.(02)401-7770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표어 :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예 배 안 내

주 일 낮 예 배 (1부) : 오전 09:00
주 일 낮 예 배 (2부)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07:00
수 요 예 배 : 오후 08:00
새 벽 예 배 : 오전 04:30
금요철야예배 : 오후 11:00
주일학교예배(주일) : 오후 1:00
학 생 부 예 배 (토) : 오후 4:30
청 년 부 예 배 (토) : 오후 7:00



당회장 조강수 목사
Pastor. Gang Soo Gho

부 목 사 : 이주홍
협력선교사 : 김종록 이두원 차명호 권오성
장 로 : 임청수 이청옥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심방전도사 : 원명숙
교육전도사 : 이민규 이윤경
전 도 사 : 양승숙
성 가 대 장 : 심재현
지 휘 : 조은총 왕소정
반 주 :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